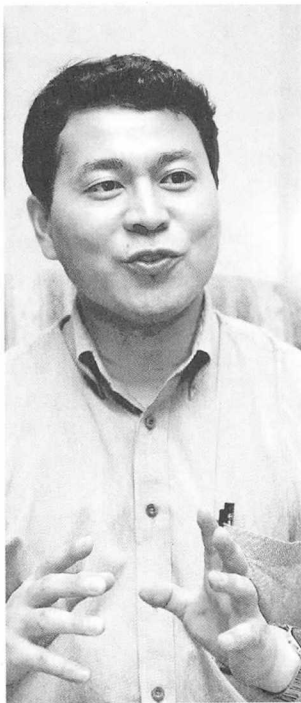




##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다른 문화를  
늘 남의 시각으로  
봅니다.  
모든 문화는 같고  
다름이 있을 뿐  
우열은 없는데  
말입니다.”

《이희수 교수의  
세계문화기행》  
펴낸 이희수 교수

외모가 이국적이라는 말에 이희수 교수(45,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는 “그쪽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사랑하면 외모도 닮는 모양”이라며 씩스러워 한다. 이 책 《... 세계문화기행》(일빛)도 8개 문명 19개 나라를 담고 있지만 관심과 애정은 제다·리야드·쿠웨이트·오만·테헤란·페르세폴리스 등 오리엔트·중동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

“70년대 석유과동으로 나라가 뒤숭숭했을 때 중동을 이해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터키와 막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됐을 때, 국가장학생으로 이스탄불대학에 유학을 떠났다. 터키는 한국에 대해 놀랄 만큼 우호적이다. 학교에서부터 한국인과 터키인이 같은 뿌리를 가졌

다는 것을 배운다. 한국전쟁 때는 미국 다음으로 군인을 많이 보내 삼촌이나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였다고 말하는 터키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중동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문화를 늘 남의 시각으로 봅니다. 경제적 성취에 따라 문화의 우열까지 가리려는 태도 말입니다.”

문화인류학의 범주에서 모든 문화는 같고 다름이 있을 뿐 우열은 없다. 서구적인 개념의 근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미개하다 평하는 것은 문화를 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름만으로는 낯설기 그지없는 도시들, 카파토키아·에피다브로스·룩소르와 아스완·카라치·부하라·히바 등을 돌아보면서 감상보다 사실 그대로 전하려 노력한 것도 그때문이다.

“특히 이스탄불은 지금까지 입국도장 수만 70개인데, 한 100번쯤 방문한 후 방문기를 쓰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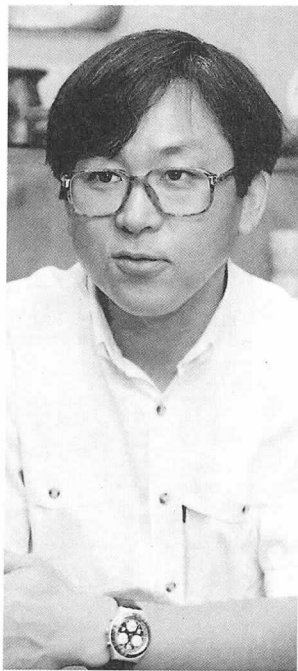
인류 문명의 옥외박물관으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그곳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의 이상을 보았다.

이희수 교수는 최근 외환위기가 단순한 경제적 충격이라기보다 오히려 문화적 충격이라고 본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 한 달 경제적 파트너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세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줬다.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보는 일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 이현주 기자

## 이름을 부르듯 옛길을 걷는 맛

아람 벌어진 밤나무숲 사이로 놓인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다가 멀리 ‘과녁빼기’로 보이는 ‘뺑대’를 바라보며 한참동안 지정 거리는 일. 사람들이 다니면서 생기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사라



“산길을 걸으며 사라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죠. 산행과 사유를 결합시키고 자연 속의 살터를 기억해야 해요.”

《옛길》 펴낸 안치운씨

지는 옛길을 걷는 일이다. 옛길을 걷는 일이 한없이 더딘 까닭은 흐려지는 자연을 하나하나 호명해 그들의 존재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산길을 걷다 보면, 길 옆으로 난 작은 새길이 보입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며 흙 속에 파묻힌 가재도구를 발견하죠. 사라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죠.”

안치운씨(41)가 펴낸 《옛길》(학교재)은 강원도 곰배골에서 강선기 가는 옛길, 소백과 태백 사이의 풍리 옛길 등 사라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점점 자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한 영혼의 비망록이다. 전기도 들어서지 않는 어둠 속에서 프랑시스 풍주의 “끝없이 밤으로 들어가라. 그때 불현듯 빛이 솟는다”는 시구를 떠올리고 김초·박주거리·삼주·작약·지황 등 약초이름과 겨우살이·바위떡풀·나비나물·질경이 등 풀이름을 하나하나 되뇌는 까닭은 현대의 속도에 탄축을 걸기 위해서다.

“자연은 온전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가기 전에 자료를 찾아 텅빈 채 둘러보고 돌아와 글을 쓰는 까닭은 그 온전함에 다가서기 위한 작은 행위죠.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산행과 사유를 결합시키고 자연 속의 살터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죠.”

옛길. 잊혀지면 매우 허전한 것들. 그가 이 책에서 달구리·편더기·물똥싸움 등 아름다운 우리말을 한껏 살려 그의 말마따나 책읽기를 ‘지정거리게’ 만드는 까닭도, 아침가리·대골·아롱가지 등 한자로 번역되기 이전 우리 지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산문집이 한없이 아름다운 까닭은 메아리처럼 서로 울리는 이 이름들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듯이 느릿느릿 꽃, 나무, 마을, 산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걷는 사람. 그는 이름난 연극평론가이기도 하다.

— 김연수 기자

##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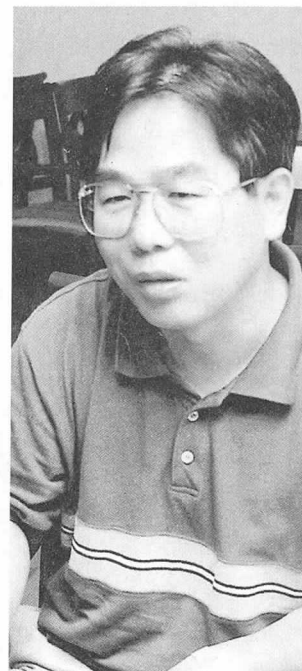
“도대체 무얼 그렸는지 알 수가 없네.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현대미술을 접하게 된 일반인 대부분은 자괴감까지 느낀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개인적인 감성의 차이므로 자기비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작가조차 자기 그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미술의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감상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느낌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 겁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평론가 박우찬씨(38, 예술의전당 전시기획팀)는 《머리로 보는 그림 가슴으로 느끼는 그림》(재원)을 통해 미술과 관객간에 조성된 거리감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는 특히 현대미술

의 난해함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작가



“그림을 감상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느낌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 겁니다.”

《머리로 보는 그림 가슴으로 느끼는 그림》 펴낸 박우찬씨

의 창작태도와 어려운 단어를 남용하는 평론가의 선부른 권위가 관객과의 대화 단절을 부추긴 데서 비롯한다고 지적한다. 타자를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작가나 평론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미술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관객이 없는 예술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책은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 일반인, 특히 청소년이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냈다.

“2만년 미술사를 섭렵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 ‘눈’을 갖기 위해 미술사적 기초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가슴으로 대화하면 미술도 그리 어렵지 않죠.”

그는 당분간 신비화된 미술의 껍데기를 벗기는 일에 몰두할 생각이다. 또한 국내 서양화가의 그림을 분석하는 일과 한국화의 체계를 정립하는 글도 쓸 계획이다.

— 오원진 기자